

'세상을 보는 창' 책에서 공존의 길 찾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제28차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가 지난 5월 12일~1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IPA서울총회에는 60개국의 700여명이 참가해 IPA 역대 최대 규모의 총회가 되었으며, "책의 길, 공존의 길(Diversity in a Shared Future)"이라는 주제 아래 총회 기간 동안 '새로운 역할',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길'이라는 일일 주제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출판문화 주역들인 세계 출판인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는 국제 출판 행사로 진행되었다.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 개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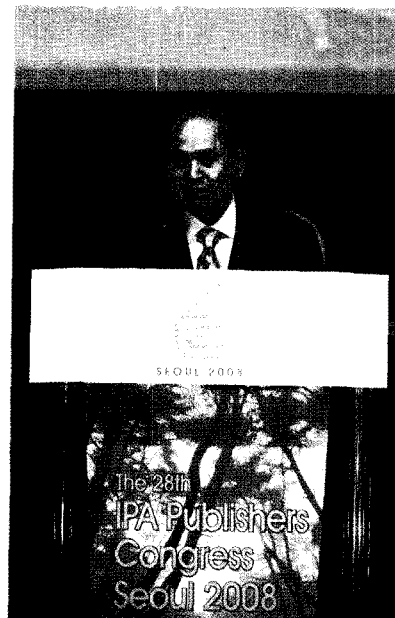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 개막식이 지난 5월 12일 코엑스 아셈홀에서 진행되었다.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IPA는 1896년 창립된 이래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저작권 증진 및 보호, 문맹 퇴치, 독서진흥,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사명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공헌해왔다"며 "세계 10대 출판국이라는 위상을 가진 한국에서 IPA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의 도서문화를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또 세계 출판 산업의 교류강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아나 마리아 까바네야스 IPA 회장은 인사말에서 "출판 산업은 음악산업보다 3배가 크고 영화산업보다 20배가 큰 창의적인 산업이지만, 정치인들과 국가 정책 입안자들에게 과소평가돼 왔다"며 "각 나라 정부가 출판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견고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이번 총회기간에 진행될 총 24개 분과별 회의 중 첫 순서로 '책의 길, 공존의 길 : 출판계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관한 회의가 열렸다. 헤르만 스트라우트 IPA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노리오 고미네 일본출판협회 회장, 프랑스 에디티스출판사 알랭 쿠크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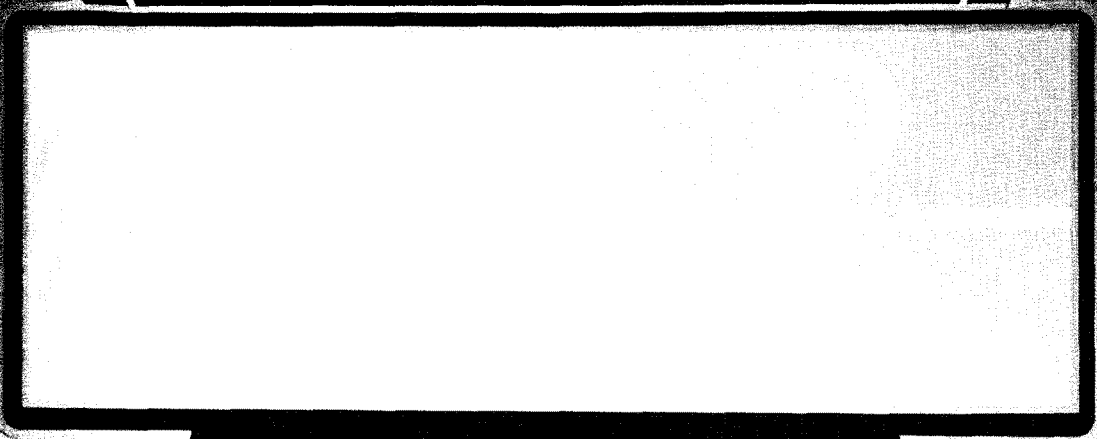
SEOUL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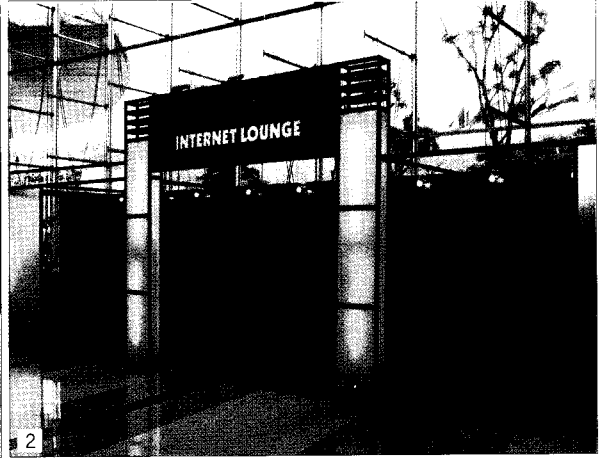
- 2008 서울총회 개막식에 세계의 많은 출판인들이 참관했다.
-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The 28th IPA Publishers Congress Seoul 2008





1.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직지홍보관을 조성해 고인쇄문화를 홍보했다. 2. 행사장 1층 입구에 인터넷 부스를 설치해 참가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경영자(CEO), 미국 존 와일리&선스 출판사의 데보라 와일리 부사장 등이 나서 정보기술 발달과 독서습관 변화, 세계화 등이 출판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했다.

15일까지 이어졌던 분과별 회의에서는 번역권, 도서 정책, 아시아 출판의 과제와 미래, 중국 출판의 오늘, 아동출판의 경향, 불법복제 대처문제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실라 캡스 전 캐나다 부총리, 베스트셀러 작가 앤드루 킨, 양더엔 중국출판공작자협회 부회장 등도 분과별 회의에 참여했다.

디지로그, 종이와 디지털의 공존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종이 인쇄매체의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초연설자로 나선 이어령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는 이를 ‘디지로그(Digilog·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 시대의 개막’으로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인쇄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는 가격이 없는 게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 시스템”이라면서 “인터넷 환경에서 이러한 정보가 무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그 존재 가치는 갈수록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간 진행되었던 26개 섹션도 ‘인터넷시대 종이매체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재건 출판사 ‘그린비’ 대표는 ‘번역권, 다양성을 위한 도전’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지배하는 21세기는 속성상 접근의 용이성과 쌍방향성을 추구한다”면서 “종이매체의 저작권은 공정 이용을 강화해 저작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

로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곡된 정보 확산을 일삼는 누리꾼의 행태를 꼬집는 움직임도 있었다. ‘아마추어의 승배’를 쓴 미국작가 앤드루 킨은 “신문이나 책 같은 기존 전통매체가 격양된 의견을 남발하는 ‘사이비 인터넷 전문가’ 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다”면서 “익명의 고교생과 대학교수가 동일한 권위를 부여받는 현 인터넷 환경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을 넘는 종이매체의 미래

불법 복제나 저작권 등과 관련해 인쇄매체의 정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환경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마이클 케플링거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부사무총장은 기초연설에서 “21세기 디지털 환경은 정보가 가공돼 전달되는 과정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면서 “종이매체는 물론 인터넷 등 모든 정보 전달 과정에서 지식 권한을 보호하는 세계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번역권, 다양성을 위한 도전’ ‘저작권 이해 조정’ ‘불법 복제와의 싸움에서 배운 교훈’ 등 비중 있는 섹션도 진행됐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맞춰 독서 진흥을 위한 언론의 역할에 주목하기도 했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독서문화 진흥과 그 좌표’에서 “동일일보의 ‘2008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처럼 한국의 언론들은 독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미래의 지식 기반 사회에서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3. 개막식이후 첫번째 회의에서 책의길, 공존의 길이란 주제로 데보라 악일리(미국)의 연설을 토론자들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 4. 노벨상 수상작가 오른 파묵이 인터뷰 도중 환하게 웃고 있다.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 폐막식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 폐막식은 5월 15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총회 참가자들은 '2008 IPA 서울총회 결의문'을 채택하고 출판의 중요성과 저작권 존중을 촉구했다.

결의문은 ▲각국 정부가 원서뿐만 아니라 번역도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할 것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사업활동의 자유를 존중할 것 ▲모든 출판 관계자들이 저작권 보호에 동참할 것 ▲각국 출판인들이 협력해 작가와 출판인이 공존하는 기술을 개발할 것 ▲교과서 출판에서 민간 출판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할 것 등을 각국 정부와 출판계에 촉구했다.

폐막식에서는 아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IPA회장과 백석기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의 폐회사에 이어 프랑스 소설가 장 마리 르 클레지오, 한국 소설가 이문열 씨가 폐막 기조연설에 나섰다.

르 클레지오는 “책과 기록문화가 인류역사를 이끌어왔다”는 책예찬론을 펴고 특히 “문학 출판의 경우 다양한 매체의 도전을 받고 있으나 그 고유한 영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문열 씨는 “선진국의 출판계는 세계화에 한 발 늦게 참여하게 된 권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오만하다해도 좋을 만큼 인색하고, 반대로 새로 세계화의 질서 속에 편입되려고 하는 권역도 공존에 우호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번 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인식되고 심도 있게 논의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출판협회(IPA)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는 78개의 국가 대표 출판협회와 국제 출판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1957년 4월 세계에서 27번째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회원에 가입하였다.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이명박 대통령 축사 전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들 모두는 유네스코의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유구하고 찬란한 출판 기록의 역사를 가진 출판문화 강국입니다. 아울러 한국민은 강한 호기심과 지식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지식기반의 IT 정보화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열정과 전통 및 문화, 정보 인프라는 우리 출판지식 산업을 발전시키고 세계 디지털 출판지식 시장을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탕위에서 새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글로벌 지식문화 강국'의 목표를 세우고 힘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출판정책을 '규제'에서 창의와 자율이 꽃피는 '진흥과 육성'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수·우량도서의 출판을 지원하고 도서 물류 체계를 현대화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입니다. 또, 출판 지식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출판과 우리 책의 해외 번역 출판을 확대하고 출판·인쇄 분야의 국제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출판지식산업의 국제 진출과 국내 출판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출판협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서울총회가 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출판 산업을 세계에 알려 한 단계 도약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 문화 유산 관광을 통해 참석자 여러분께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출판 올림픽'으로 불리는 IPA 총회를 축하드리며, 서울 총회의 큰 성공과 참석자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